

# 클릭하면 禪이 보인다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



## 일심정도

원효 스님은 자비광명에 의지하거나 스스로 닦아 나아가거나, 모든 수행문의 궁극은 일체 경계가 일심인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일심의 지혜를 증득하면 자연히 동체대비심이 일어나 뜻밖에게 이익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완성인 일심광명(一心光明)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경계는 일심이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써 부처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고 깨달음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부르는 정토(淨土)는 자연과 생명이 청정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입니다. 정토문은 진실한 믿음으로 정토를 염원하여 열반행을

니다. 번뇌가 심중한 범부는 명호(名號)를 생각(念)하고 부름으로써 결정된 믿음을 성취하고 안심을 얻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합니다. 선근이 깊은 근기는 경계를 관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실천하여 대도에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원효 스님은 범부로부터 현성에 이르러서까지 다 함께 염불의 한 문(門)을 통해 일심정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화통하였습니다.

원효 스님이 밝힌 일심정도는 서방정토(西方淨土)와 유심정토(唯心淨土)를 다 함께 포용하고, 불법의 씨앗을 민중의 땅에 뿌려 정토의 꽃을 피우는 독창적인 정토사상입니다. 민족의 정의성과 자긍심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한국불교를 탄생시킨 위

## 서방·유심정도 포용 독창적 일체 중생이 부처요 한생명

실천함으로써 아미타불의 본원력(本願力)에 힘입어 정토에 왕생하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일체중생을 구제하리라" 하신 근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토는 일체 중생이 마침내 돌아갈 곳이지만, 범부에게는 자신의 현실과 거리가 먼 종교적 세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원효 스님은 일체 중생은 반드시 정토에 왕생하며, 보리심을 정인(正因)으로 삼아 심해초발심주(十解初發心住) 보살도 현실 가운데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토는 종교적 신념으로 염원해야 할 아미타불의 세계인 동시에 자비광명에 의지하여 성취할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이 말하는 정토는 곧 일심의 바다로 향하는 깨달음의 세계이니, 바로 일심정도(一心淨土)입니다.

원효 스님의 염불관 가운데 '칭명(稱名)'은 믿음을 성취하는 방편이며, '관상(觀相)'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염불선(念佛禪)의

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일체중생은 누구든지 열반으로써 일심의 바다요, 부처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성취한 국토가 아미타불의 정토 혹은 법신보살의 정토는 아니더라도, 조금 깨달은 보살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국토라면 그것 역시 이 땅의 아들을 밝히는 길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원효 스님이 역설한 일심의 도(道)는 공작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의 큰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경문 해설하기를 산더미처럼 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락에 안주하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일심은 곧 실천철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뇌하는 범부가 요원하게만 생각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지금 현실적 고통이 끊없는 삶의 현장에 펼쳐 감로수를 뿌리고 갈증을 쉬게 하였습니다.

<양산 정도원 원장>

## 문답 수행점검 사이트 인기

"누구나 무심이 근원입니다. 무심에서 밥을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일해요. 맞지요, 풀피리님?"(석우 스님)  
 "예, 저 그걸 알아요."(풀피리)  
 "그럼 무심을 이미 얻은 것이네요. 아니, 원래 갖추어진 것이지만..."(스님)  
 "그런가요? 하지만 뭐가...?"(풀피리)  
 "뭐가 미진하죠?"(스님)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나아가려는 것이 문제예요.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 본래 무심인데 뭘 더 원해요? 마음이 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스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인가 봐요."(풀피리)  
 "분명히 얻지 못함을 아는데도 얻으려 해요. 이것이 병입니다."(스님)  
 "예."(풀피리)  
 "생각 일어난다면 어긋나고 해 놓고서 금방 또 한 생각 일으켜요."(스님)  
 "그래서 바보죠."(풀피리)  
 "바로 그래서 달마 스님은 무심을 얻으려고 수행하냐, 어떤 조좌도 하지 말고 바로 원래



그림·김영민

## 조사선·위빠사나 등 묻고 답하기 활발 바쁜 현대인들의 수행 점검에 큰 도움

무심임을 깨달으라 한 겁니다. '무심을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지 따로 수행을 둘 것이 없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스님)

인터넷 다음카페의 '무불선원(cafedaum.net/mubulsunwon)'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석우 스님이 '무심론(無心論)'에 대해 제자들과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장면이다. 선어록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문답은 더 이상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선법을 오랫동안 접하던 스님이나 재가자들이 운영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질문을 던지면 된다. 카페에 들어 온 시간이 서로 맞으면 즉시, 늦어도 하루 안에 선리(禪理)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말끝에 탄박 깨치는 '언하면오(言下便悟)'를 연상케 하는 선문답과 점검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간혹 수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선지식 및 지도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답식 수행점검이 사이버 선방에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0여 곳의 불교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가운데 일반적인 수행상담을 넘어 전문적

인 수행문답이 이뤄지는 사이트는 20여 곳. 이 가운데 전통 조사선의 선문답 형식에 따라 수행문답을 하고 있는 사이트는 무불선원, 현정선원, 무심선원, 보림선원, 선림도량, 마하수련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무불선원과 현정선원, 무심선원의 선원장인 석우 스님과 대우 법사, 김태완 법사는 실제로 문답식 법회를 통해 조사선의 공부를 지도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한 문답이 이뤄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일대일 점검과 참선 법문이 주요 공부 형식으로 좌선 보다는 일상 속에서 마음 공부하는 '생활선'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의심나는 점은 언제든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점검해 주는 방식이 일반화 되었을 정도로 수행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 계열의 사이트에 못지 않게 위빠사나와 불교명상 사이트들의 수행문답도 활발하다. 위빠사나 수행센터의 통합 사이트인 위빠사나를 비롯해 보리수선원, 호두마음, 여래선원, 연방선원, 팔야나미타명상선원 등이 수행과정상의 의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상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고 있는 관수련회, 명상아카데미, 바라보기명상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행 문답하는 사이트	
무심선원	www.mindfree.net
무불선원	cafe.daum.net/mubulsunwon
현정선원	www.fuoyee.or.kr
관수련회	www.kwan.or.kr
마하수련원	www.mahazen.org
명상아카데미	www.bodhitao.com
바라보기명상	www.paraboki.net
선림도량	www.daedusun.org
소리산참선캠프	cafe.daum.net/sorisansan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여래선원	www.buddhapia.cc
위빠사나	vipassana.buddhism.org
촉사	www.chooksersa.org
호두마음	www.vmcwv.org
팔야나미타명상선원	cafe.daum.net/kalyanamitta
보리수선원	www.bonsu.or.kr
보림선원	www.boirim.co.kr
연방선원	lotuspond.compuz.com
한국위빠사나선원	www.vipassanacenter.com

이밖에 양산 정도원 원장 정목 스님은 아미타파를 통해 염불선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열불행자들의 환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목 스님은 소리산참선캠프에 사이버 수행상담 코너를 마련해 신도 대하듯 자상하게 수행과정들을 점검해 주고 있다. 촉사사, 안국선원 등 참선도량에서도 수행상담 코너를 통해 수행문답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수행 점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무불선원 운영자인 선봉화(48) 보살은 "사이버 선문답은 청법자로서의 예의가 없거나 장난기 있는 불행적, 또는 타종교인 등에 의해서 다소 불의를 빚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건전한 수행문화로 자리잡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ia.com

## 인터뷰 석우 스님



### 온-오프라인서 참선 지도 무불선원 다음카페 회원 1천여명

"본노가 일어날 때, 시기심이 일어날 때, 질투가 일어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비교하고 싶을 때, 남을 흠집 내고 싶을 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진리요, 수행입니다." 서울 방학4동에 위치한 무불선원의 선원장 석우 스님은 탐진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수행하기 좋은 때라고 말한다. 옳으니 그르니, 크니 작으니, 잘났으니 못났으니 하는 분별이 일어날 때 즉시 한마음을 쉬고 놓아버리면 이 때가 바로 '부처의 행'(佛行)을 할 때라는 것이다.

참선 법회를 위주로 무불선원을 운영하는 석우 스님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사람이 곧 부처,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주제로 참선 공부를 지도해 주목 받고 있다. 스님은 다음카페에서 '무불선원(cafedaum.net/mubulsunwon)'을 운영 중인데 회원이 1천여명이 넘는 정도로 선 수행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님은 견성과 수행방법, 고승 설법, 선문답 강의 실, 초심자의 방, 선행일기, 종합 경전 강의, 선 관련 자료실 등을 통해 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특히 '스님의 대화방'이나 매주 목요일 저녁(오후 8시30분~10시30분)에 열리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문답 시간도 갖고 있다.

석우 스님의 선 법문은 곧바로 핵심을 짚어 들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는 그 눈(무위)인, 본성, 불성, 주인공 등을 곧바로 보게 하는 일체선을 닦았다. 초심자로부터 구차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근기의 수행자를 제정하는 스님은 늘 "깨달음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겸손하여야 하며, 갈구하는 마음이 강해야 바르게 온다"고 일깨운다. 수행자의 갈구하는 마음이 강하면 갈망 수록 법문 한마디에 즉시 깨닫는다는 것이다.

<천계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는가-천수경 강의> <최상의 지혜-반야심경 강의> <법성계 강의> <조주선사 선문답-조주특강> 등의 저서를 펴낸 스님의 포교 원력은 선불교를 널리 알릴 불자들이 수행과 공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 역술의 제왕(帝王)

**역술을 알면 현생이 바뀐다!**

옛 성현의 글에는 "군자는 재해(災害)를 예지(豫知) 함으로써 예방을 먼저 한다."고 하였다. 황제가 세 아들에게 전수하길 이 법으로 나라에 선정을 펴고, 수신을 보호하라! 만일 현명자가 없어 비법 전수를 하지 못하면 명상대상에 가서 물어라!

- 길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 흉시는 언제 끝나는가?
- 근심과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가?
- 언제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때는?
- 상대가 방문할 때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
- 기로에 서 있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산소탈인가, 귀신탈인가, 조상탈인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흉재가 발생한 뒤에 감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 여러적은 중생이 깨어나라! 늦지 않은가?

**태산옥임의원에서 기조임원, 팔음교정, 임상력으로 수강생 모집!**

- 포교당, 철학원, 운영연구회
- 궁금하신 분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 운영상담은 예약!
- 각종 비법을 전수!

**도서안내**

- 아베 대신 대전과 황제내경, 육임대전
- 길흉정단비법
- 실전감정법
- 감정극비전
- 초학상해

주소: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501-7번지 1층  
 자료구입 계좌: 대구은행 093-08-247393 (예금주: 손외경)  
 전화 053)627-0170 / 휴대폰 016-580-6654

##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은 참 건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통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민속의화학자 권재우 동(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봉인製藥(株)**

## 승복 법복 인네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마 130,000
2. 면, 광목(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마 100,000
3. 면레프사(역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마 130,000
4. 무명(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마 180,000
5. 마 : 한국산 100% (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마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경남제일모직 200,000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대구 중구영동면 [동삼아파트 지하 공간]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간)

##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률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환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개별의사 의뢰**

- ▶ 1941년 2월 5일 경력 상주 출생
- ▶ 1963년 중앙대학교(대구) 의과대학 졸업
- ▶ 1967년 홍익대학교(대구) 의과대학 졸업
- ▶ 현재 대학병원, 민간 병원, 가정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연구실, 한방병원, 연구실, 한방병원, 연구실, 한방병원
- ▶ 저서: 21세기 한방 신약 개발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